

코믹단편영화

카나비스 기르기 (Growing cannabis)

부제 : 우리의 웃음만큼은 진짜였다.

우연히 딸(대마) 씨를 구하게 된 3인방. 대마초를 기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.

등장인물

윤지석
고천관
박준형
떨아저씨

INTRO.

- *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세친구.
- * 짠 하는 장면과 핸드폰 보는장면 정적으로 교차되며 지루한 술자리 분위기를 보여준다. 중간중간 헌팅도 다녀오고 평범한 남자 셋이 모인 술자리가 담긴다.
- * 무표정으로 게임하는 세 친구들.
- * 술마시고 돌아오는 길 벨튀하는 장면.
- * 새로운 자극제들이 필요한 모양.

카나비스 기르기.

S#1 지석의 자취방

- 지석과 준형은 침대위에서 자고 있다. 천관은 바닥에서 자고 있다.

원룸으로 자취를 하게된 지석. 전 날 술을 과하게 먹은 흔적들이 가득하다.

천관 : 야야야, 진짜 좆됐다. 좆됐다!

지석 : 왜?

천관 : 담배피고 싶다. 담배피러가자.

지석은 과자부스레기를 던진다.

S#2 지석의 자취방 앞

담배를 피어나오는 두 친구. 햇살이 굉장히 눈부셔서 얼굴을 찡그린채 담배에 불을 붙인다. 원룸 앞 화단에 쪼그려 앉아 들은 담배를 핀다. 원룸 바로 앞은 시장이라 그런지 옆 길은 분주해 보인다. 숙취가 가시지 않은채 담배를 펴서 그런지 헛구역질을 하는 지석.

천관 : 해장할 겸 라면 끓여 먹을까?

지석 : 좋지.

천관 : 난 니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.

지석 : 난 니가 사온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.

천관 : 집에 라면없냐?

지석 : 하나밖에 없는데, 바로 앞에 편의점엔 많아.

천관 : 준형이 저새끼 깨워서 라면 사오라고 할까?

**준형이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있는 모습*

지석 : 그냥 짬뽕이나 시켜먹자.

천관 : 먹고 뭐할래?

지석 : 뭐... 하지?

천관 : 뭐할까?

지석 : 근데 너희 언제까지 있다 간다고?

천관 : 나야 뭐, 개강전까지 프리하니까 며칠 더 있다가 가려고. 너도 며칠 더 있다 갈래?

지석 : 순간 여기 우리 집 아닌줄 알았다. 자연스러웠어. 근데 준형이 저새끼는 여자 친구랑 싸울 때마다 우리집와서 쳐자더라. 하... 넌 절대 동거는 하지마라.

천관 : 그래야지. 일단 동거할 여자친구나 있었으면 좋겠다.

지석 : 그냥 지금처럼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아. 지금이 딱 보기좋아.

천관 : 칭찬이야?

<어젯밤 술집에서 각자 핸드폰 보는 장면이 오버랩된다.>

** 골목길에 쪼그려 담배피고 있는 두 사람. - 투샷을 멀리서 잡는다.*

이때 멀리서 걸어오는 떨어저씨. 떨어저씨는 보부상 같은 차림새.

떨어저씨 : 떨있어요. 떨. 떨있어요. 떨.

지석 : 떨이 뭐야?

천관 : 떨? 대만데?

지석 : 대마? 대마를 판다고...?

천관 : 그러니까.

지석 : 뭐 대마씨 그런거 아냐? 한약 재료같은거.

천관이 는 아저씨에게 다가간다.

지석 : 어디가? 야 야.

떨어져서와 얘기를 나누는 천관 얼마 뒤 돌아온다.

천관 : 너 현금있냐?
지석 : 왜?
천관 : 한 봉지에 2만원이래.
지석 : 뭐가?
천관 : 대마.
지석 : 응?
천관 : 대마.
지석 : 대마?
천관 : 그래 새끼야. 대마.
지석 : 응?
천관 : 아몰라. 현금있나고.
지석 : 없지 임마.
천관 : 에이씨. 아저씨 잠시만요!
지석 : 야, 어디가?
천관 : 돈빌리러.

자취방으로 올라간다.

S#3 지석의 자취방

천관 : 야 일어나봐.

깨워도 꿈쩍도 않는 준형. 발로 몇 번 비비니까 마지못해 대답하는 준형.

천관 : 야 일어나봐. 너 지갑 어딴냐?
준형 : 뭐하게?
천관 : 대마 사게.
준형 : 뭐?
천관 : 대마.
준형 : 대마?
천관 : 그런게 있어 새끼야. 2만원 가져간다. 바로 부쳐줄게.
준형 : (침대에 일어나 앉는다.) 미친새끼가.

S#4 지석의 자취방 앞

계단을 내려오고 현관을 나와서 보부상에게 뛰어간다.
아저씨와 한참 얘기를 나누고 비닐봉지를 하나 얻어온다.
천관은 검은비닐봉지를 챙긴다. 지석을 두고 총총 집으로 뛰어 올라간다.
천관을 뒤따라 올라가는 지석.

S#5 지석의 자취방

지석과 천관은 현관에서부터 들어오며 얘기를 나눈다. 부엌에서 하나 남은 라면을 끓이고 있는 준형과 마주친다.

천관 : 깻네?
준형 : 어디 갔다왔냐?
지석 :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. 이새끼 지금 대마샀어.
준형 : 뭔소리야.
천관 : 일로와봐.

< 방으로 들어가는 천관. 뒤따라 들어가는 둘. >

천관 : 나 지금 너무 떨려.
준형 : 왜?
(천관은 품속에 비닐봉지를 꺼낸다.)
준형 : 이게뭐야?
천관 : 대마.
준형 : 뭐?
천관 : 대마라고
준형 : 무슨 말이야. 알아 듣게 설명을 해.
천관 : 요 앞에 콧수염있고 막 큰 가방 맨 아저씨가 떨었.. 여튼 요 앞에서 샀어.
지석 : 그래 무슨 이상한 가방매고... 하여튼 진짜 대마 팔 것 같은 아저씨한테서 샀어.
준형 : 아 그래 됐고, 그러니까 이게 대마라고?
천관 : 그렇다니까.

<상황인지 후 친구들을 쳐다보다가 봉지를 천천히 여는 준형>

준형 : 오오오오. 씨발... 씨네?
천관 : 정확하게는 대마씨야.

준형 : ...대마씨인게 정확하긴 해?
천관 : ...정확하게 대마씨라고 했어.
준형 : 호우~ 이야...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..
천관 : 그러니까... 나도 지금 얼떨떨해.

< 사이 >

준형 : 이제 어떡하지?
지석 : 그냥 버려.
천관 : 미쳤나 이게.
지석 : 왜?
천관 : 내가 내 돈주고 샀잖아.
준형 : 정확하게는 내돈이야.
지석 : 지금 그게 중요해?
준형 : 니 돈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지마.
천관 : 애들아. 이거... 길러볼까?

< 사이 >

지석 : 야 무슨 말도안되는 소릴 하고있어.
천관 : 아 왜?
지석 :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
천관 : 안 걸리면 되잖아.
준형 : 그렇긴 하지.
지석 : 이거... 걸리면 우리 마약사범이야.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빡센데.
준형 : 쫓리냐? 어?
지석 : 준형아, 쫓리는게 아니라. 넌 뉴스도 안보냐?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적발됐다고 뉴스에 수두룩하게 뜨잖아. 생각보다 심각한거야 이거. 아, 그리고 여기 내 집이잖아. 다 나가. 키우고 싶으면 너희 알아서 나가서 키우라고.

대마초 재배 방법을 찾아보는 천관과 준형 지석의 말은 애초에 듣지도 않았다는 듯 핸드폰을 보고 있다.

Cut 편집.

천관 : (핸드폰을 보면서) 일단 싹을 먼저 발아 시키고, 화분에 옮겨심으라는데?
지석 : 나가.
준형 : 그다음에는?

지석 : 나가라고
천관 : 온도랑 습도가 중요하대.
지석 : 나가.
준형 : 생각보다 복잡하네.
지석 : 씨발놈들아.
천관 : 일단 화분에 먼저 심어볼까?
Cut 편집 끝.

준형 : 야 근데 걸리면 진짜 좇되는거 아냐?
지석 : 내말이.
천관 : 아니 병신아. 우리나라에 원룸이 몇개데 하나하나 문 열어보면서 대마 키우나 안 키우나 확인하디?
지석 : 그건 아닌데
준형 : 그래. 상식적으로 뉴스에 뜨는거는 뭐 돈 벌려고 크게크게 일벌리니까 뉴스에 뜨는거지. 우리같이 그냥 소소하게 재미보자고 키우는걸 알긴 힘들지...?
지석 : 나 참 진짜 기가막힌다.
준형 : 야 길러보자. 솔직히 우리만 알고 있으면 걸릴 일도 없잖아.
천관 : 그래 그렇다니까.
지석 : 걸리고 말고, 너희 생각이란걸 안하고 사냐? 생각이란걸 해 상상을 해보라고 !

<대마를 하고 뽕에 취해 정신없는 웃음을 짓는 장면으로 전환>

지석 : (자기도 모르게 웃다가 자기 뽕을 때리며) 하... 이거를 기르고 피운다는 거는 솔직히 선을 넘는 행동이야.
준형 : 무슨 선을 넘어. 야 우리가 무슨 강도짓을 하재, 아님 살인을 하재? 우리 어제도 술퍼 먹었는데, 누구한테 피해준거 있나? 담배피고 술먹고 하는거나, 대마하는거나, 뭐가다른데?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내 얘기는..

<위 대사하는 중 대마적발된 뉴스가 계속해서 화면에 오버랩되서 박힌다>

천관 : 그렇지.
지석 : 그러다 걸리면? 누가 책임질거야? 니가 책임질거야? 아님 니가?
천관 : 아니 우리만 아는데 어떻게 걸리냐고 안걸린다니까?
지석 : 그래...? 아 나 안넘어가. 무슨 얘길해도 절대 안넘어가니까 그런줄 알아.
천관 : 아 왜~ 야 이거 구하기가 쉬운줄알아? 이런 기회가 있냐고.
지석 : 야야야,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, 해장이나 하자. 새끼들이 아직 술이 덜깰나.

천관 : 아 왜! 아 답답하네 진짜.

준형 : 하... 그래.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. 배고프다.

세명은 짬뽕을 먹고, 누워서 뒹굴거린다. 각자 핸드폰을 보며 깔깔거리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, 무료함을 달래는 일시적 수단일 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된다. 천관이와 준형이는 눈빛을 교환하고, 준형이는 집들이 선물로 산 화분을 뺏는다. 대마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, 필사적으로 말리는 지석, 세 친구는 방안에서 작은 전쟁을 벌인다.

그 와중에 지석은 봉투를 버리려하고 도중 몸싸움으로 봉투는 터지고 온 방안에 흩뿌려진다. <전체적으로 코믹하게>

천관이와 준형이는 지석에게 암바를 건 후 묶여 있는 셋.

지석 : 놔 좋은말 할 때 놔라.

준형 : 지석아 생각해봤는데, 이거 한 번 키워볼만해.

천관 : 그래 손해볼게 없다니까. 이거 진짜 돈주고도 못구하는 거라고.

지석 : 아니 왜 우리집에서 그러냐고! 그럴거면 너희 집 가서 키우라고!

천관 :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. 준형이 애는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제일 안전하게 목격자가 우리밖에 없는 너희집 아니냐.

준형 : 그래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복수심에 우리 셋이 대마키운다고 신고하면 어떡할거야?

지석 : 갑자기 나는 왜?

준형 : 응. 내가 3명에서 키웠다고 말할거야.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탄거지.

천관 : 그래 이미 방관죄에 동조죄야.

지석 : 하 개새끼들...

<친구들과 황홀한 파티장면이 오버랩된다.>

준형 : (비장하게) 지석아. 잘 들어봐. 우리 드디어 신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거야. 상상이나 해봐. 자취방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마약파티를 생각만해도 짜릿하지 않냐? 온몸에 피가 막 끓잖아.

천관 : 난 오래전부터 꿈꿔왔어. 이 순간을.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, 그 때 처음 대마가 내 핏속을 타고 흐른 순간! 나혼자 수백번을 상상했다고. 너희와 같이 대마하며 보내는 환상적인 파티를.

준형 : 그래. 우리에게도 특이점이 온거야. 무채색인 일상에 활기를 가져다줄 오색 찬란

한 희망 같은 존재가 온거라고 새끼야.

* 웃으며 서서히 기절하는 지석. 다급히 깨우는 두 친구.

S#6 하루 뒤 지석의 자취방

하루 뒤 싹이 터있는 화분에 분무기로 물을 주고있는 준형.

천관 : 야 잘자란다. 신기하네.

준형 : 옛날부터 우리나라 대마는 품종이 좋아서 키우기가 쉽대. 밭에 뿌리기만 해도 잘 자란다고 하더라.

천관 : 누가 그러던데?

준형 : 우리 할머니가.

천관 : 너희 할머니 마약하시냐?

준형 : 씨발놈아.

천관 : 아 너희 할머니 안동분이시구나. 삼베?

준형 : 그래 안동 삼베 유명하잖아. 나도 주워 들은거야.

* *잠에서 깬 지석*

지석 : 뭐야?

준형 : 깬어? 잘자더라.

<어제 암바했던 장면 교차>

지석 : 야 그러고 나 기절한거야?

천관 : 응 그리고는 코골던데?

지석 : 저건뭐야?

준형 : 아~ 이거? 신세계로 가는 첫 발걸음이야.

천관 : 어제 너무 잘 자길래 우리끼리 준비해봤어.

지석 : 내가 잤냐? 니들이 강제로 재웠지?

준형 : 그거나 그거나. 여튼 이제 물 좀 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. 이쁜아 건강하게만 잘 자라라.

지석 : 나한테 그 지랄하고, 저걸 심었다고?

< 지석이를 잠자리로 눕혀주고 이불 덮어주고 자리 정리하고 화분 심는 장면 등등..

지석 : 니들 진짜 미쳤네. 맛이 갔네. 눈깔이 그냥 뒤집혔네.

문득 지석의 머릿속에 마약하고 완전히 폭력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둘의 이미지가 그려진다. 지석은 갑자기 화분을 들고 싱크대에 버린다.

<병맛코드>

준형 : 뭐하는거야 씨발놈아!

지석 : 기절시키고... 대마씨를 화분에 심고... 너희는 이미 타락했어. 마약에 눈이 멀었다고, 지금 너희는 악마라고 악마! 너희가 이렇게 망가지는걸 더 이상은 차마 지켜 볼 수가 없어.

천관 : 뭘 개소리야 미친새끼야.

지석 : 사실... 난 너무 두려워. 너희 진짜 이거 키우고 난 뒤에, 지금도 이정돈데 이거 나중에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. 진짜 너희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..

준형 : 하...

* 준형이는 지석의 멱살잡고 망연자실한 듯 고개를 숙인다. 천관은 털썩 주저 앉는다. 지석은 그런 둘을 위로해준다. 그리고 울리는 벨소리.

지석 : 애들아.

천관 : 왜?

지석 : 나 아버지 돌아가셨다.

서로의 태세와 입장이 뒤 바뀐다. 지석을 위로해주는 둘.

S#7 일주일 뒤 지석의 자취방

일주일 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다. 몸싸움을하며 곳곳에 씨앗이 흩뿌려진 탓인지 지석의 방안을 온가득 덮으며 자라있는 풀들.

지석 : 애들아... X됐다.

전화를 받고 다들 지석의 집으로 모인다. 무성하게 자란 풀을 보고 서있는 세 친구. 들어 올 때 마다 한 친구씩 놀란다. 세친구는 방안에서 한 동안 말없이 대마를 구경하고 만져본다.

준형 : 야 옛날부터 선조들이 장례치를 때. 상주가 왜 삼베옷을 입는 줄 아냐?
지석 : 왜?
준형 : 누군가 집에 초상이 나면 엄청 슬프잖아. 그래서 그 슬픔을 대마하면서 견디라는 거지. 대마하면 기분 좋아지잖아. 그래서 대마로 만든 삼베옷 입고 하는거래. 옛 선조들의 지혜의 메시지 인거지.
지석 : ...그래?
준형 : 그래. 니도 옛 선조들의 전통을 이을 때가 된거야.
천관 : 근데 이거 진짜 대마 맞냐?
준형 : 맞는거 같은데? 이거 풀이랑 모양이랑 여기 꽃 핀거랑 비슷하지 않냐?
천관 : 품종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나...?
준형 : 그럴걸 ? 야. 지금 한 번 펴보까? 이거 그냥 태우면 되는거야?
천관 : 몰라.
준형 : 니가 모르면 누가 아는데 해봤다매?
천관 : 나는 완제품밖에 안해봤지.

지석은 대마에 라이터를 갖다대고 연기가 나면 마신다.

지석 : 아무렇지 않은데?
준형 : (어깨를 토닥이며) 그래... 아직 정신없을 때긴 하지...
천관 : 야. 일단 입을 몇 개 떼서 말려보자.
준형 : 그리고 담뱃재 다 털고 거기다가 채워볼까?
천관 : 굿 아이디어.

이파리를 좋은걸로 골라서 떼다. 드라이기로 건조작업중. 끝나고 드디어 대마초를 만든 세 친구.

준형 : 누가 먼저 할래?
천관 : ...

말없이 대마초를 뺏어 불을 붙이는 지석. 기침을 한다. 두 모금 정도 깊게 피운다. 환각 증세를 보이는 듯 누워있다.

준형 : 야 어떤데? 어떤데?

이어서 준형이 피우기 시작한다. 지석이 옆에 나란히 눕는다.

천관 : ... 어때...?

천관은 대마초를 준형이에게 건네고 셋은 나란히 눕는다. 셋은 미친 듯이 웃는다.

S#7 다음 날 아침.

셋은 일어나 앉아 있다.

천관 : 야 좆되지? 옛날부터 내가 말했지 대마 하자고.

지석 : 야 조용해.

천관 : (작은소리로) 그니까 내가 진작 하자 그랬잖아.

준형 : 아 좆됐다. 우리 이제 마약중독자야?

지석 : 걱정마. 대마는 중독성도 없다. 오늘 밤에도 고?

천관 : 오브... 콜스

준형 : 나 잠시 나갔다올게 여자친구가 부른다.

천관 : 뭐라해?

준형 : 몰라. 짜증나. 어제부터 연락 잘 안된다고 난리치잖아. 이번엔 진짜 담판짓고 온다. 아오.

천관 : (대마를 귀옆에 꽂은 상태로) 어이 친구. 괜찮아. 얘기 잘하고 와.

지석 : (대마에 물을 주며) 일찍 들어와.

S#8 싸우러 가는 길

준형이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혼자 싸우고 이별하는 연습을 한다.

약속장소에 다와서 공원 화단에 있는 풀을 본다.

화단 끝말에는 '애기똥풀' 이라고 써져있다.

준형이는 멍하니 바라본다. 지석의 집에 있는 풀과 똑같다.

S#9 지석의 집 창문으로 빠져나오는 미친듯한 웃는 소리. 방에서는 지석과 천관이 또다시 대마를 피운 듯 웃으며 누워있다.

S#10 준형이는 풋말을 보며 크게 웃는다.

여자친구 : 야!

준형 : 왔어?

여자친구 : 웃음이 나오냐?

준형 : 미안해...

여자친구 : 왜 아까 카톡할 때처럼 해봐.

준형 : 아 내가 잘못했어.

여자친구 : 맨날 이런식이야.

준형 : (애교가득) 미안해.

준형과 여자친구 티격태격하며 준형이가 화를 풀어준다.

떨어져씨와 세 친구들 웃는 모습 교차대로 나오면서. 마무리.